

# 불붙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

### 여야 공감대... 지급 범위·재원 마련 방식 놓고 의견 불합 정책위, 1차 효과·재정 부담·코로나 추이 고려 '신중모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에 불이 지됐다.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2차 대확산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최대한의 비상 방역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소극적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는 기조 하에 가능한 자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최대한의 방역대책과 경제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코로나 19로 인해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층에 더욱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분들의 가정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우선은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므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된 후 제2차 재난지원금 같은 국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

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위한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선별 지원은 비효율적 방안으로 1차 지원 때처럼 실기하고 사회 에너지를 소모하는 하책"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재원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작년과 비교해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올랐거나, 이미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대 5%의 특별연대세를 부과, 약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로부터 '고소득 근로자, 법인들이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는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 전 대표에 이어 다른 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 30일 시작되는 추경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급 결정으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곳간의 열쇠를 전 재정부국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씬을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 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상승

### 리얼미터 조사... 문 대통령 46.1%·민주당 39.7%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보수 단체들이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 후 재확산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전국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보다 2.8%포인트 오른 46.1%로 집계됐다. 3주 만의 반등이다. 부정 평가는 50.8%로 1.8% 포인트 내렸다. 모름·무응답'은 1.0% 포인트 줄어든 3.1%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11.8%포인트 ↑, 51.2%), 부산·울산·경남(8.3%포인트 ↑, 45.2%), 광주·전라(6.8%포인트 ↑, 71.5%) 등에서 올랐지만, 대구·경북(9.9%포인트 ↓, 28.5%)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7.8%포인트 ↑, 43.7%), 50대(6.3%포인트 ↑, 47.0%), 40대(5.2%포인트 ↑, 60.5%)에서 상승했지만, 70대 이상(4.9%포인트 ↓, 31.2%)에서 내렸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4.9%포인트 반등한 39.7%를 기록, 1.2%포인트 내려 35.1%로 나타난 통합당을 다시 앞섰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지지도 역전을 허용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인 4.6%포인트 차로 통합당을 재역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전국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보다 2.8%포인트 오른 46.1%로 집계됐다. 3주 만의 반등이다. 부정 평가는 50.8%로 1.8% 포인트 내렸다. 모름·무응답'은 1.0% 포인트 줄어든 3.1%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11.8%포인트 ↑, 51.2%), 부산·울산·경남(8.3%포인트 ↑, 45.2%), 광주·전라(6.8%포인트 ↑, 71.5%) 등에서 올랐지만, 대구·경북(9.9%포인트 ↓, 28.5%)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7.8%포인트 ↑, 43.7%), 50대(6.3%포인트 ↑, 47.0%), 40대(5.2%포인트 ↑, 60.5%)에서 상승했지만, 70대 이상(4.9%포인트 ↓, 31.2%)에서 내렸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4.9%포인트 반등한 39.7%를 기록, 1.2%포인트 내려 35.1%로 나타난 통합당을 다시 앞섰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지지도 역전을 허용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인 4.6%포인트 차로 통합당을 재역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광주 장륙습지, 국가습지 지정 길 열렸다

### 정의당 강은미, 습지보호지역 범위 확대 법안 발의

광주 장륙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의 길이 열렸다.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이 24일 '하천'을 습지의 정의에 포함하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행위제한 조항의 예외규정에 하천법에 따른 홍수로 인한 피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포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1년여의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도심에 자리한 장륙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달라고 지난 1월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홍수재해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국토부의 반발로 그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민 86%가 국가습지

지정에 찬성한 장륙습지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앞당겨 된다"면서 "2018년 진행된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에 따르면 장륙습지에는 수달, 삿,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 4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829 분류군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습지가 홍수 완화, 수질 정화, 생물종 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할도 담당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통합당 당명 공모, 국민·자유·한국 '최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공모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유' '한국' '미래'가 뒤를 이었다.

통합당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당명 공모전에 1만6천941건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3천328건이 '국민'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 많은 제안은 '자유' '한국' '미래'라고 전했다. '우리' '행복' '희망' 등의 단어도 많았다고 김은혜 대변

인이 전했다.

또 '○○당' 형태가 아닌 명사형을 비롯해 '늘푸른' '위하다' '다함께 희망으로' 같은 기존의 당명 형식을 탈피한 응모작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통합당은 새 당명에 맞춘 로고를 제작하고, 여의도 당사에 입주하는 현판식까지 추후 연휴(9월 말) 전 마칠 계획이다.

# 靑-여야 대표 회동

### 코로나 확산에 '일단 정지'

코로나 19 재확산 탓에 청와대가 미래통합당에 제의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회동 운운하는 것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국면전환용으로 회동 제의를 한 것이라, 더 이상 회동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회동을 서두르지는 않는 듯한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 부동산 문제 등 엄중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회담의 기본적인 형식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조율작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 각 정당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예를 들어 통합당의 경우 '일대일 회담이 아니라라도 회담에 응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與 "통합당, 이달내 공수처장 추천위원 안내면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문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백혜련 간사, 김종민 의원,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연합뉴스

# 법사위 의원들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 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

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2명의 위원을 추천했으나, 통합당은 아직 추천을 안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통합당의 똘니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태와 직무유기로 절절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더는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경매 물건
<b>건 물</b>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b>공장</b>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 : 12029㎡(3638.77평) 건물 : 1929.992㎡(583.823평) 감평가 : 2,054,798,910원 최저가 : 920,550,000원(45%) 유찰 3회
<b>건 물</b>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b>공장</b>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평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 2회
<b>의료시설</b>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b>공장</b>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평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b>공장</b>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평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b>공장</b>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평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